



私有林 行政 어디로 가는가

千 正 夏 / 營林公社 代表理事 本會理事

林業이 다른 産業에 비하여 회임기간이 길고 사업소득이 생산비도 못미치는 구조상의 특징이 있는데다가 우리나라와 같이 소유 규모가 영세하여 임업이 산업으로서 정착 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실정임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이러한 산업을 대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행정을 한다는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라고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행정이라 하더라도 행정은 각 분야별로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을 바꿀수도 없고 바꾸어서도 안된다고 생각한다.

상공행정은 상공업의 발전과 상공인의 복지증진이 될것이고 산림행정은 임업의 발전과 임업인의 복지증진이 될것이다. 따라서 사유림 행정은 그 대상자가 산림소유자(산주)가 되어야 함은 자명한 일이다. 그런데 이번에 산림법을 개정하면서 산림행정(사유림행정)이 길을 잃고 말았다. 작년 연말에 국회를 통과하여 금년 1월13일자로 공포한 산림법 개정이 그렇게 되었다.

산림법 제8조(영림계획의 작성 및 인가) 제1항에 “사유림의 산림 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림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는 것을 이번에 법 개정하면서 제3항을 신설 하였는데 그 내용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은 영

림기술자 자격증 소지자가 아니면 이를 작성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지금 우리나라 사유림 소유자가 약 200만명인데 이중 영림기술자 자격증 소지자가 몇명이나 되겠는가? 산림청 통계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지금까지 영림 기술자 자격증 발급 총수가 약 1,900명인데 약 50%는 산림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근무자라고 한다.

나머지 50%가 모두 산주라고 하더라도 1,000명 미만이다. 이 1,000명은 200만명의 2,000분의 1이다. 비율로는 0.05%에 불과하다.

산림법 개정의 이유중 하나가 규제 위주의 법규정을 경영 조장 위주로 완화하여 국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는데 사유림 경영에서 영림계획 작성권을 산주로부터 기왕에 있는 규정마저 박탈한것이 경영을 조장하고 국민 편의를 도모하는 것인가.

또 산림청 법무관의 개정 산림법 해설에서 영림계획은 산림의 기초 조사등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소정의 자격을 가진 기술자만이 작성 할수 있도록 보완 하였다고 하는데 농토의 성질은 농민이 알고 산지의 성질은 산주가 안다. 산지의 성질에 맞추어서 심고 가꾸는 계획을 산주가 못할 일이란 말인가. 언제쯤 별채 하는것이 가장



유리할 것이란 판단을 산주가 못할 일이란 말인가. 산주들이 못하는것은 계획을 못세우는 것이 아니고 산주들이 할수없도록 학술 용어만 나열하여 실효성도 없는 복잡한 서식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영림 기술자 자격증 소지자만이 영림계획을 작성할수 있도록 한것은 사실상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 중앙회로 하여금 영림계획 작성을 전담토록 법제화 한것이나 다름없다. 사유림 경영을 산림조합에서 어떻게 한단 말인가 계획만 작성하면 임업이 발전하고 경영이 된단 말인가. 영림계획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산주의 영림 의욕이다. 산주가 산림경영 의욕이 없는데 아무리 좋은 계획을 작성한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좋은 종이에 인쇄하여 보기 좋게 철해서 케비넬에 비치해 두면 영림계획인가.

<16페이지에서 계속>

ut put)이라는 순환과정 (Feed Back) 을 통한 업무수행을 해왔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었을때 산림관계 업무의 외적요인을 무시하고 내적요인을 더 중요시 하므로써 일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추궁을 하는 성향이 강하다. 사실 어떤일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보다는 이런 결과가 나올때 까지의 과정을 더 중요시하여 처리함이 보다더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10) 오늘날 기술중심주의로 흐르기 때문에 기술부서의 장은 행정직이 아닌 기술직으로 보해야함은 필연적 사실이다.

시대적 변천에 따라 행정직종의 부서는 계속 늘어나는 반면에 1차산업인 농·림·수산 및 축산분야의 부서는 갈수록 축소지향적이다. 그러므로 임업직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기술부서의 장은 기술

영림계획 제도가 실시된지 근 30년이 되었다. 국가의 어떤 제도가 30년이 가깝도록 국민에게 정착하지 못하였다면 그것은 어딘가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 그 원인을 분석해서 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는가.

산주들이 산림경영 의욕이 없는것은 산림소득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나라 임업 발전은 70%가 넘는 사유림의 발전 없이는 기대하기 어렵고 사유림의 발전은 산주들의 수준에 맞고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산주 스스로 계획도 세우고 집행도 할수 있도록 행정적 경제적 지원을 하여 산림 경영에 의욕을 갖도록 하는 것 만이 이나라 임업 발전의 기초가 되리라 확신하는 바이다. ★

직으로 반드시 보해야만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수행상의 원활은 물론 불합리한 점은 점진적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기술 중심주의 시대에 있어서 오히려 행정은 기술을 후면에서 지원하는 역할만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모든일은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사고와 직관을 통해서 신념에 찬 행동으로 바르게 행하려는 의지가 있을때만이 모든것이 가능하게 되어있다.

더더욱 절실히 요청되는 것은 임업직공무원 개개인의 뼈를 깎는 깊은 반성과 함께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대한 부단한 연구와 피눈물나는 노력이 뒷따를 때에 우리가 찾아야 할 영역을 확보하는데 하나의 첩경이 되리라 굳게 확신하는 바이다.